

# ‘챗GPT’와 저작권 문제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챗봇 ‘ChatGPT’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ChatGPT를 사용해 본 후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 수준에 인류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ChatGPT는 ‘GPT’라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ChatGPT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한다.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ChatGPT는 사람의 사고에 근접해 간다.

사람을 닮아가는 ChatGPT는 새롭고 다양하며 복잡한 여러 법률적 이슈를 발생시킨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저작권’에 관해서만 살펴보다도 ① ‘학습’의 단계(온라인상의 정보수집 등), ② ‘대화’의 단계(ChatGPT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창작물 등), ③ ‘활용’의 단계(ChatGPT에 의해 창작된 결과물의 활용, 저작권 귀속 등) 등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ChatGPT 현황과 저작권 이슈’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ChatGPT와 관련해 ▲ChatGPT 생성물 저작물성 ▲학습자료 이용의 저작권 문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오픈소스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ChatGPT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채팅 로그)이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경우(예컨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만들어 낸 시나 소설 등)에 이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정 알고리즘’에 기초해 산출해 낸 결과물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질문자 또는 개발자가 Ch

atGPT라는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므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해 낸 결과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다음으로, ChatGPT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ChatGPT는 기존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나 수많은 이용자(user)가 입력하는 정보를 데이터마이닝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므로, ChatGPT가 생성해 낸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ChatGPT가 생성하고 이용자가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ChatGPT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크게 또한 자주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ChatGPT의 알고리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추가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이나 입법의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 반도체도 사람이 만든다



김 재 웅

(산업부)

요즘 반도체 회사 내부 분위기는 참으로 냉랭한듯 하다. 업황 악화로 비용 줄이기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그나마 힘든 일상을 위로해주던 성과급도 사실상 받기 어려워져서다.

시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성장 가능성만 믿고 오랜 공부 끝에 반도체 전문가가 된 국내 최고 인재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해외나 학계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어두운 반도체 전망은 대학 입시에서도 드러났다. 한때 일부 의대와도 경쟁하던 반도체 전공학과가, 이제는 완전히 경쟁에

서 밀려버렸다. 특히나 최근 정계 태도도 반도체 전문가들을 실망케하기 충분했다. 업황이 악화하면서 국가적 위기까지 우려됐고, 결국 부담을 줄이는 ‘K칩스법’이 나왔음에도 모두가 외면했다.

반도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장비나 연구 개발은 물론, 전문가 육성과 보상 등 인적 자원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재가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물론,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를 통해 인재들을 지켜내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찾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나마 거대 양당이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지만, 반도체 업계가 입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 일부에게는 K칩스법이 어느새 재벌을 위한 특혜가 됐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같은 논리로 K칩스법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려움에 처한 반도체 업체와 종사자들에 ‘썬툰’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온다.

세금이 줄어든다면 소외계층 지원이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그리 외닿지가 않는다. 예산이 줄면 복지부터 줄어든 거라는 얘기,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를 부정하면서 낙수효과를 지켜야한다는 셈이다.

반도체 업종 고액 연봉자들이 내는 세금과 기부가 적지 않다. 공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은 기업에는 몰라도 사람 개개인에는 꽤나 맞는 말인듯 하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지원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기왕이면 인터넷서널을 꿈꾸자.

/juk@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곧은살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48년생 일단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60년생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72년생 회사에서 내 것 아닌 것도 야키는 작은 배려를, 84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금해하지 마라.



37년생 살아보니 무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도 기회가 된다. 49년생 신규투자는 신중. 61년생 어려운 시국이지만 태양은 늘 누구에게나 비추게 마련. 73년생 욕심 내면 마음만 다친다. 85년생 얼룩이 발견되면 처리해야 되는데.



38년생 나이는 공으로 먹는 게 아니니 나이 값을 해라. 50년생 사회생활은 공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62년생 누구가의 도움으로 오후 재물 들어온다. 74년생 바빠도 질서를, 86년생 우선재물을 추구해야 들어올 것 아니겠는가.



39년생 봄꽃이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51년생 인생은 각본 있는 드라마. 63년생 뜻대로 되는 일이 펼쳐진다. 75년생 재물이 부족한 팔자는 남보다 가난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87년생 실력이 승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으나.



40년생 환경을 탓하며 고민하지말자. 52년생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라 했는데. 64년생 자신의 인생이라 해도 남의 시선은 생각해야. 76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자신. 88년생 부지런하면서 분수를 지키면 보통은 간다.



41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53년생 결혼한 자녀에게 부부일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65년생 위기를 기회로 필승전략을 세우자. 77년생 꿀을 얻으려면 먼저 벌통을 손질. 89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42년생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5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66년생 운이 상승하니 무슨 일든 시작. 7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쉽다. 90년생 공은 통글다는 말이 있으니 기회는 공평.



43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5년생 모두 좋을 수는 없으니 나누는 양보. 67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을 온다. 79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91년생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44년생 공덕은 부메랑처럼 나를 찾아와 복된 운세를 불러들인다. 56년생 영업발전 소득발생. 68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음주과식하지 마라. 80년생 세상의 틀은 있지만 알 수가 없다. 92년생 불평 말고 퇴근하고 부모님을 살펴보도록.



45년생 인생의 1순위는 항상 자신일수밖에. 57년생 자연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평하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69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81년생 이직보다는 실력을 키우자. 93년생 굶은 길에서 선두를 추월하는 이치로 기회는 오기마련.



46년생 어제의 고난이 오늘 힘을 가져온다. 58년생 조상님의 제사를 정성으로 하면 나에게 축복이다. 70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으로 거래성사. 82년생 양보로 얹혀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94년생 저녁 7시 불길하니 다투지 마라.



47년생 병도 약도 다 내가 할 탓. 59년생 바쁜 친구에게 전화질말자. 71년생 동료들 시기하는 마음은 내복을 차버리는 행동인데. 83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95년생 세속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은 없으니 준비하고 기다리자.

##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⑧

정축일丁丑이다. 축인인丑寅引으로 소쥬를 본 범음은 망설임 없이 달려든다. 소는 범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간방良方의 합승인 축丑과 인寅은 장간藏干 전체가 암합暗合한다. 이때 太陽이 음陰을 지배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호랑이가 소를 보면 식록食祿이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순하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민간에 주인을 위해 호랑이를 물리친 소애기가 전해 내려온다. 중국인의 행동 또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쳐다보되 행동은 소처럼 느릿느릿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팔자에 축인丑寅을 다 갖추면 예리하면서도 우직한 성향을 품게 된다. 이때 축에 해당하는 육친六親의 고통도 함께 나타난다. 다음으로 축묘인丑卯이 있다. 거북이丑와 토끼卯는 우화의 단짝이다. 고대소설 토끼전과 이솝이야기의 토끼와 거북이가 대표적이다. 승부가 1승 1패다. 민첩하고 영리하기로는 토끼가 한수 위다.

이 얘기는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는데 대개 자라의 비극으로 결말난다. 은생우해恩生于害다. 토끼가 당할 때도 있다. 이때는 미처가 문제가 된다. 축미丑未가 충충하면 묘卯는 입묘入墓한다. 이어서 축진과丑辰破를 설명한다면 계묘는 어린물고기辰를 잡아먹는다. 축과 진이 파하면 상대적으로 진辰이 더 해를 입는다. 팔자에 축을 보면 질병으로 고생하기 쉽다. 술戌과 미未의 형제이 더해지면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 암癌을 뜻하는 cancer는 히포크라테스가 암과 같은 악성종양을 카르키노스karkinos라고 기록한 것에서 유래한다. 암은 계묘를 뜻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150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254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학습할**  
문제출제: 손호성

##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파즐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   |   |   |   |   |   |   |     |
|---|---|---|---|---|---|---|-----|
|   | 7 |   | 1 |   |   |   |     |
| 4 |   |   |   | 5 |   | 7 | 8   |
|   |   |   |   | 4 |   |   | 6   |
| 2 | 6 |   |   |   | 8 |   |     |
|   |   | 8 |   |   |   | 6 |     |
|   |   |   | 2 |   |   |   | 4 5 |
| 5 |   |   |   | 1 |   |   |     |
| 1 | 3 |   | 5 |   |   |   | 9   |
|   |   |   |   | 2 |   | 5 |     |

|   |   |   |   |  |   |   |   |
|---|---|---|---|--|---|---|---|
| 1 |   |   |   |  | 4 | 6 |   |
|   |   |   |   |  | 9 | 5 | 1 |
|   | 4 | 9 |   |  |   |   |   |
|   |   |   |   |  |   | 5 | 7 |
| 4 | 7 |   |   |  |   |   |   |
|   |   |   |   |  |   |   |   |
|   |   |   |   |  |   | 3 | 8 |
|   | 6 | 2 | 9 |  |   |   |   |
|   |   | 1 | 6 |  |   |   | 2 |

## 정답

|   |   |   |   |   |   |   |   |
|---|---|---|---|---|---|---|---|
| 1 | 5 | 7 | 2 | 6 | 8 | 4 | 9 |
| 6 | 8 | 2 | 4 | 9 | 5 | 7 | 1 |
| 8 | 9 | 4 | 7 | 1 | 8 | 6 | 3 |
| 9 | 7 | 8 | 9 | 4 | 2 | 8 | 1 |
| 2 | 8 | 9 | 1 | 5 | 6 | 8 | 7 |
| 4 | 1 | 6 | 8 | 8 | 7 | 9 | 2 |
| 9 | 6 | 1 | 8 | 7 | 4 | 2 | 5 |
| 8 | 4 | 8 | 9 | 2 | 9 | 1 | 6 |
| 7 | 2 | 5 | 6 | 8 | 1 | 9 | 4 |

|   |   |   |   |   |   |   |   |
|---|---|---|---|---|---|---|---|
| 2 | 7 | 6 | 8 | 4 | 9 | 1 | 5 |
| 9 | 4 | 1 | 8 | 7 | 6 | 2 | 9 |
| 9 | 8 | 8 | 9 | 2 | 1 | 7 | 6 |
| 8 | 6 | 2 | 9 | 1 | 8 | 9 | 7 |
| 1 | 9 | 7 | 4 | 9 | 8 | 9 | 2 |
| 4 | 9 | 8 | 2 | 6 | 7 | 8 | 1 |
| 8 | 8 | 4 | 1 | 9 | 2 | 6 | 7 |
| 7 | 1 | 5 | 6 | 8 | 4 | 9 | 8 |
| 6 | 2 | 9 | 7 | 8 | 5 | 4 | 1 |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